

# 10·27 법난 30주년, 진실규명 목소리 높다

10·27법난 30주년을 맞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서울 조계사에는 기념법회와 피해 스님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계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목소리를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27법난은 불교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폭력사건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0·27법난 피해자를 대표한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정부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불전 앞에 참회해야 하고, 종단은 후세에 역사적 교훈을 널리 알려주는 교육의 전당을 마련해 법난 피해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관계자들이 참석해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불법적인 공권력

에 의해 수난과 수모를 당한 스님과 불교계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어느 시기에 누가 했든지 간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정치권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사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난피해자 스님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과 명예회복 방안으로 제시된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드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보상 없는 명예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스님들은 심의위와 종단에 △종단 내부 차원의 명예회복 △증권 등 독립 △법난 피해 홍보 등을 주문했다.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법난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0·27법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법회에는 피해자 간담회에 초청 받은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과 원행 스님, 법타 스님, 삼보 스님 등 당시 피해스님 10여 명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진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인기 한나라당 국

회의원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길 국방부 차관,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100자 뉴스

### 국제승가법황청 2대 법황 보광스님 취임

(사)국제승가법황청은 10월 26일 대전 대림관광호텔에서 '국제승가법황청 대법황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G20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재로 시작된 법회에는 법황청 및 월드승가회 임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기원재에서 월드승가회 회장 무승 스님(월드승가회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G20성공개최 기원문을 낭독하며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제2세 법황에 취임한 보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조대 법황인 인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구환경 보호와 화합과 평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2252-5286 노덕현 기자

### 민추본, 남북불교교류 60년사 발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민추본 창립 10주년, 분단 60주년을 맞아 남북불교 교류를 정리한 책 《남북불교 교류의 흐름》을 발간했다. 책은 남북불교 교류에 관한 역사적 개관, 남북불교 교류의 유형과 특징, 남북불교 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불교 교류의 전망과 방안을 다뤘다. 이상연 기자

### 명진스님 "직영문제 화쟁위 결정 수용"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총무원과 갈등을 빚어 온 봉은사 직영문제에 관해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10월 24일 봉은사 법당에서 열린 일요일회 직후 "중재안 수용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화쟁위와 총무원 결정을 수용하겠다. 더 이상 봉은사 직영에 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법주사, 미륵전 삼천불 봉안 1차 점안

법주사는 그동안 비가 세는 등 보수가 필요했던 청동미륵대불 미륵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하면서 미륵 3000불 봉안 불사를 해왔다.

주지 노현 스님은 "20년 동안 계속 보수를 했지만 계속 비가 세어 이번에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3000불을 모두 모시는 화랑법회에 앞서 우선 조성된 불상만이라도 점안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철 총형지사장

### 부산파라미타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배명숙)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3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전국 각 지역의 12개 학교(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밝고 고운 화음으로 기량을 펼쳤다. 합창제는 김해 월산중학교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금산(부산시장상)에는 중등부의 부산 학산여중과 고등부의 서울 송곡여고가 수상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불교진흥원 제2회 원효학술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성균관대 교수) 제2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동양·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서양사상 연구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교수, 박사과정 후 비 전임교수, 석·박사과정생 등 3개 영역별로 총 3000만원이 전담된다. 지원 방법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이나은 기자

## 대구 최초 불교은행 자비나눔 20년 회향

### 보현사신협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봉행



이 사장 지성 스님은 "보현사신협을 만들 때 수행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융업에 뛰어든다는 자

대구·경북 지역 불교계에 최초로 창립돼 금융을 통한 자타불이·상부상조의 가르침을 전해 온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 前 동화사 주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10월 2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보현사신협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제가 모험이며 동료나 주위의 질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한다는 정신을 투철히 해 사원경제 및 불법 흥포의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보현사신협은 부처님의 자리타 정신을 창립이념으로 1980년

8월 설립됐다. 자산 규모 500억원의 증권 신협이다. 설립 이래 부처님 가르침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적금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해왔다.

또, 운영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자 저소득계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무료급식소 자비 집 정기후원,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의 경로위안잔치 후원 및 우수조합원연수(그곳에 가고 싶다, I, I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 보현사신협은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매년 연등축제, 성도절 및 찬불가 경연대회, 합창단 발표회, 대구불교대학 등 재정후원과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조동성 기자·손범현 대구지사장

## 불교 소설, 출판계 흔들다

### "정찬주 소설 <무소유> 10만부 돌파"

지난 4월 출간된 소설가 정찬주(사진)의 <소설 무소유>가 최근 판매 10만부 돌파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로 단장된 광화문 교보문고의 불교서적 판매대가 사라졌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불교 소설이 조용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특히 출판계가 대체로 불황인 점과 종교 분야의 서적들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소설 무소유>가 10만부를 돌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법정 스님 입적 후, 법정 스님 관련서적이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것과 달리 대부분 판매가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설 무소유>의 10만부라는 판매기록은 더욱 눈에 띈다.

<소설 무소유>는 출간 이후 교보·영풍 등 대형 서점 등에서 소설 분야 판매순위 10위 이내에 계속 머물며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소설가 정찬주씨는 "요즘 <소설 무소유>를 읽는 독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자신의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듯 했다. 이어 정씨는 "소설로 인해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알게 되고, 스님이 남긴 에세이의 감동이 소설을 통해 배가 된다는 말을 들을 땐 자부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소설 무소유>를 펴낸 열린원 출판사측은 "법정 스님의 이름으로 펴낸 책들이 중세와 판매가 금지되는 11월 이후,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소구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올해 안으로 15만부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 추가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제4회 참선대중화선회

평등한 대중은 누구나 차별 없이 참선해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참선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등한 사람이 참선해 깨닫는 희망과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선을 통해 깨닫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선은 자신의 마음을 보아 곧 바로 견성하여 성불하는 지름길이기 불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달음에서는 나와 남을 나누지 않으며, 살고 죽음에 구애받지 않으며, 잘나고 못나고, 귀하고 천하고, 배우고 가지고 그렇지 않음에 차별되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미혹은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본래부터 모든 사람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입재 : 11월 12일 오후 3시  
회향 : 11월 14일 오후 3시

### ◆ 서울 차량은행 안내

당일 08:30 조계사 정문, 09:00 2호선 잠실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접수,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 네이버카페 '활인선원'에서 받습니다.

☎ 1644-5266, 070-7519-9929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 참선·단식·정진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고 둘이 아닙니다. 몸만 가지고 몸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병행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국민단식 • 다이어트 11일최고 3kg 요요현상제로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성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생리연장 금연 금주

### 몸에 배인 관행 체질전환 삼매체험 단기출가로 해결하십시오.

##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2010년 겨울 및 1,2월 4박 5일 과정 수행일정(참선 단식)  
2010년 11월 12일(금) ~ 16일(화) 4박 5일

1차 - 2010년 12월 25일(토) ~ 29일(수)	2차 - 2010년 12월 31일(금) ~ 4일(화)
3차 - 2011년 1월 14일(금) ~ 11일(화)	4차 - 2011년 1월 21일(금) ~ 25일(화)
5차 - 2011년 1월 31일(월) ~ 4일(금)	6차 - 2011년 2월 18일(금) ~ 22일(화)
〈청소년 대학생 일반〉	